

국 어

해설위원 : 오 대 혁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국가직 9급 기출 분석

1. 쉽다고 느끼지만 실수 좀 하셨을 겁니다.

최근 출제되었던 국어 시험 중에서 정말 쉽게 출제되었다. 한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나, 조금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문제였다. 「구지가」의 원문 제시를 통한 전개 방식 파악, 한자의 독음과 표기, 한자성어 등 따지고 보면 한자 한문과 관련을 맺는 문제가 4문제나 출제된 꼴이다. 이 부분에 실수가 없었다면 나머지는 대체로 무난한 편의 문제들이었다.

2. 문학의 비중을 높이고 비문학의 비중을 낮췄다.

문학에서 7문제나 출제된 꼴이다. 그에 비해 비문학은 2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다. 문법이나 어문규범, 한자 등 나머지는 과거와 비슷한 비중이었다. 문학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늘 그래 왔듯이 어렵지는 않았다. 출제 비중의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험생들은 편안히 풀었을 문제들이었다.

출제 영역	문항 수	출제 포인트(난도)
국문법	5	[한글의 특징-훈민정음] 난이도 하 [음운론-음운의 체계] 난이도 하 [고유어의 의미] 난이도 상 [형태론-접두사] 난이도 하 [의미론-단어의 문맥적 의미] 난이도 하
어문규정	3	[한글맞춤법] 난이도 하 [한글맞춤법-용언의 활용] 난이도 하 [띄어쓰기] 난이도 상
속담과 한자	3	[한자] 난이도 중 [한자의 독음] 난이도 상 [한자성어] 난이도 하
비문학	2	[비문학-독해] 난이도 하 [단락의 연결] 난이도 하
문학	7	[문학-고전시가-고대가요] 난이도 중 [현대시-화자 분석] 난이도 중 [현대소설-추론] 난이도 하 [현대소설-내용 파악] 난이도 하 [현대시-시어의 의미] 난이도 하 [현대소설-서술자의 생각] 난이도 하 [고전소설-유충렬전] 난이도 중

문 1. 다음 시가의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燐灼而喫也

- 「구지가」 -

- ① 요구 - 위협 - 환기 - 조건
- ② 환기 - 요구 - 조건 - 위협
- ③ 위협 - 조건 - 환기 - 요구
- ④ 조건 - 요구 - 위협 - 환기

[정답] ②

[문학-고전시가-고대가요] 난이도 중

「구지가」를 원문으로 제시하여 작품을 기억하지 못하고, 번역을 할 수 없으면 혼란스러웠을 문제다. 원문을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하구하 거북아 거북아 - 환기
수기현야 머리를 내어라 - 요구
약불현야 내어놓지 않으면 - 조건
번작이끼야 구워서 먹으리라 - 위협

‘환기-요구-조건-위협’의 전개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 2. 화자의 처지나 행위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sap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러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sap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sap을 씻고」 -

- ① 화자는 일을 마치고, 해 지는 강변에 나와 sap을 씻는다.
- ② 화자는 강물에 슬픔을 퍼다 버리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 ③ 화자는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 ④ 화자는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해 지는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한다.

[정답] ④

[현대시-화자 분석] 난이도 중

시적 화자는 노동자로 하루해가 저물 무렵에 강가에서 sap을 씻는다. 화자는 그곳에 “쭈그러 앉아 담배나 피우고 / 나는 돌아갈 뿐이다.”라고 한다. 여기에서 화자는 ‘삶에 대한 무기력하고 체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샛강 바닥 썩은 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는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폐하고도 부정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암시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표현되는 “흐르는 물에 sap을 씻고 /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는 고단한 삶을 질 수 있는 가난하고 누추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힘겨운 모습을 보여준다. 시적 화자는 감정을 절제하고 있지만, 감정을 아예 배제하고 해 지는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화자는 강가에서 sap을 씻고 담배를 피우며 고단한 노동자의 삶을 성찰하고 슬퍼하고 있다.

문 3.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사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국 시대 말, 진나라의 공격을 받은 조나라 혜문왕은 동생인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어 구원군을 청하기로 했다. 이십 명의 수행원이 필요한 평원군은 그의 삼천여 식객 중에서 십구 명은 쉽게 뽑았으나, 나머지 한 명을 뽑지 못한 채 고심했다. 이때에 모수라는 식객이 나섰다. 평원군은 어이없어하며 자신의 집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물었다. 모수가 삼 년이 되었다고 대답하자 평원군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법인데, 모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모수는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신다면 끝뿐이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했다. 만족한 평원군은 모수를 수행원으로 뽑았고, 초나라에 도착한 평원군은 모수가 활약한 덕분에 국민으로 환대받고, 구원군도 얻을 수 있었다.

- ① 吳越同舟 ② 囊中之錐
③ 馬耳東風 ④ 近墨者黑

[정답] ②

[한자성어] 난이도 하

밑줄의 앞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법”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밑줄에 ‘주머니’가 나와 있어 한자성어를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금방 답을 찾았을 문제이다.

* 囊(주머니 낭) 中(가운데 중) 之(어조사 지) 錐(송곳 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란 뜻으로, 재능(才能)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드러난다는 비유적(比喩的) 의미(意味).

- 같은 뜻의 표현들: 雞群孤鶴(계군고학), 雞群一鶴(계군일학), 群雞一鶴(군계일학), 拔群(발군), 白眉(백미), 絕倫(절륜), 錐囊(추낭), 錐處囊中(추처낭중), 出衆(출중), 鶴立雞群(학립계군)

<오답 피하기>

- ① 吳(나라 이름 오) 越(월나라 월) 同(한가지 동) 舟(배 주): 오(吳)나라 사람과 월(越)나라 사람이 한 배에 타고 있다는 뜻으로, **어려운 상황(狀況)에서는 원수(怨讐)라도 협력(協力)하게 됨, 뜻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됨**을 말한다.
③ 馬(말 마) 耳(귀 이) 東(동녘 동) 風(바람 풍): 말의 귀에 동풍이라는 뜻으로, **남의 비평(批評)이나 의견(意見)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홀려버림**을 이르는 말.
④ 近(가까울 근) 墨(먹 묵) 者(농 자) 黑(검을 흑):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을 가까이하면 그 버릇에 물들기 쉽다**는 말.

문 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애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빼었는지 백화는 꿈쩍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벼운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으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덥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구.”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중에서 -

- ① ‘눈 덮인 길의 고랑’은 백화가 신음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② 등에 업힌 백화는 영달이가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③ 영달이는 ‘대전에서의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④ 백화는 처음에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기를 싫어했으나, 영달이의 등에 업힌 이후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 보인다.

[정답] ③

[현대소설-추론] 난이도 하

‘어린애처럼’은 백화가 가벼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표현이다. 그리고 백화를 업었을 때 ‘대전에서의 옥자’를 떠올리는데, 그것은 영달이가 예전에 동거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영달은 착암기 기술자로 공사판을 돌아다니는 뜨내기인데, ‘옥자’라는 작부와 동거를 했지만 헤어진다.)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라고 추론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추론이다.

문 5.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고장 난 시계를 **고치다**.

- ①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다**.
② 상호를 순 우리말로 **고치다**.
③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고치다**.
④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법을 **고치다**.

[정답] ③

[의미론-단어의 문맥적 의미] 난이도 하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를 때는 ① **품사가 같아야** 하고, ② **문장 구조가 같아야** 하고, ③ **호응하는 어휘가 비슷해야** 하고, ④ **말 바꾸기를 하더라도 유사하게 바꿀 수 있는 경우를** 고르면 된다.

제시된 문장은 ‘주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호응하는 ‘시계를’와 유사한 호응을 하는 것은 ‘자동차를’이며, ‘수리하다’라는 말로 ‘보가’와 ③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제시된 단어와 ③의 사전적 의미는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을 ...으로」본디의 것을 손질하여 다른 것이 되게 하다.
② 「...을 ...으로」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
④ 「...을 ...으로」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

문 6. 밑줄 친 말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시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 최일남, 「노새 두 마리」 중에서 -

- ①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②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③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④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가벼운 데가 있다.

[정답] ①

[고유어의 의미] 난이도 상

전후 문맥을 보아야 추리할 수 있다. 아이들이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어떻게 놀았을까? ‘시망스럽게’는 ‘여간 ~게 놀지 않았다’ 즉, ‘여간 ~게 노는 게 아니었다.’라고 풀어볼 수 있어 부정적인 표현임을 짐작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표현인 ②는 부자연스럽고, 아이들이 노는데 통일성이 있어야 할 이유 없으니 ③도 부자연스러우며, ④는 ‘태도나 행동’을 주어로 했는데 ‘노는 모습’을 주어로 해서는 부자연스럽다. 그렇다면 ①이 가장 무난한 해석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스럽다’는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해석하면 ‘~한 데가 있다’라고 표현되곤 한다. 그렇다면 ①과 ④ 중에서 답하면 되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 시망스럽다: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예) 그는 말을 시망스럽게 해 다른 사람을 당황스럽게 한다.

<오답 피하기>

- ② 활발(活潑)하다 ③ 산만(散漫)하다 ④ 잔망(孱妄)스럽다

문 7. 밑줄 친 접두사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닌 것은?

- ① **강**염기 ② **강**타자
③ **강**기침 ④ **강**행군

[정답] ③

[형태론-접두사] 난이도 하

접두사 ‘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강-: [접사] 1.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그것만으로 이루어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3. ‘억지스러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강(強): [접사] ‘매우 센’ 또는 ‘호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강기침’의 ‘강-’은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사용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한자 ‘강(強)’을 접두사로 한 단어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강염기(強鹽基)[강염기]: [명사] <화학>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과 양이온으로 완전히 해리되는 염기. 수산화 칼륨, 수산화 나트륨 따위가 이에 속한다.
② 강타자(強打者)[강타자]: [명사] <운동> 야구에서, 타격이 강한 타자.
④ 강행군(強行軍)[강: 행군]: [명사] 1. 어떤 일을 짧은 시간 안에 끝내려고 무리하게 함. 2.<군사>무리함을 무릅쓰고 보통 행군보다 멀리 또는 빨리 행군함.

문 8.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를 강판에 가니 즙이 나온다. (기본형: 갈다)
 ② 오래되어 불은 국수는 맛이 없다. (기본형: 불다)
 ③ 아이들에게 위험한 데서 놀지 말라고 일렀다. (기본형: 이르다)
 ④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났다. (기본형: 들르다)

[정답] ②

[한글맞춤법-용언의 활용] 난이도 하

‘불은’은 매개모음 ‘으’가 쓰인 것으로 보아 ‘ㄷ’ 불규칙 용언인 ‘불다’를 기본형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다’는 ‘불으니, 불으면, 불은’ 등과 같이 매개모음 ‘으’가 쓰인다.

* ‘불다’는 ‘부는, 분, 불어, 부니’와 같이 매개모음 ‘으’가 쓰이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갈다, 가니, 간, 갈아’ 등으로 활용된다.
 ③ ‘이르다, 이르니, 일러’ 등으로 활용된다.
 ④ ‘들르다, 들러, 들르니’ 등으로 활용된다.

문 9. 다음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일주일여 한 번쯤 돼지고기를 반 근, 혹은 반의 반 근 사러 가는 푸줏간이었다. 어머니는 돈을 돌려 보내며 매양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

적게 주거든, 애라고 조금 주느냐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비계는 말고 살로 주세요, 해라.

푸줏간에서는 한쪽 볼에 힘껏 쥐어질린 듯 여문 밤톨만 한 혹이 달리고 그 혹부리에, 상기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꼬들리고 있는 듯 길게 뻗힌 수염을 기른 홀아비 중국인이 고기를 팔았다.

애라고 조금 주세요?

키가 작아 발돋움질로 간신히 진열대에 턱을 올려놓고 돈을 밀어 넣는 것과 동시에 나는 총알처럼 내뿔었다.

고기를 자르기 위해 벽에 매단 가죽 끈에 칼을 문질러 날을 세우던 중국인은 미처 무슨 말인지 몰라 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비계는 말고 살로 달래라 하던 어머니가 일러준 말을 하기 전 중국인이 고기를 자를까 봐 허겁지겁 내쏘았다.

고기로 달래요.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으며 그때야 비로소 고기를 덥석 베어 내었다.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 오정희, 「중국인 거리」 중에서 —

- ① 어머니의 주위에 대한 ‘나’의 수용
 ②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③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
 ④ ‘나’의 말에 대해 푸줏간의 ‘중국인’이 보여 주는 정서

[정답] ③

[현대소설-내용 파악] 난이도 하

작품에 제시된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서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어머니는 푸줏간에서 고기를 사 올 때 어떻게 하라고 일렀고,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
 ② 어머니는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어떻게 고기를 사서 오라고 일러 주고 있다.
 ④ 푸줏간의 ‘중국인’은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으며’ ‘나’를 대하고 있다. ‘애’가 하는 행위가 우습게 느껴진 것이다.

문 10.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말과 생각이 서로 꼭 달라붙은 쌍둥이인데 한 놈은 생각이 되어 속에 감추어져 있고 다른 한 놈은 말이 되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생각이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이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는 생각이다.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앞의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틀렸다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거의 대부분 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누구든지 가슴속에 응어리진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애매운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말과 생각이 서로 안팎을 이루는 쌍둥이가 아님은 쉽게 판명된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가능한 한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 ①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
 ②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③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④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정답] ④

[비문학-독해] 난이도 하

마지막 단락에서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는 ④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2단락의 “생각이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이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는 생각이다.”라는 표현 속에서 말이 생각보다 범위가 좁음을 밝혔다.
 ② 2단락의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거의 대부분 말로 나타낼 수 있지만”을 통해 말이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임을 밝혔다.
 ③ 1단락의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말과 생각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드러낸다.

문 11.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 ① ‘청(靑)무우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쓰였다.
 ② ‘흰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③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다.
 ④ ‘삼월(三月)달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은 모두 차가운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정답] ③

[현대사-시어의 의미] 난이도 하

‘나비’는 현대 물질문명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나약한 존재를 ‘서글프게’ 바라보고 있다.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다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청(靑)무우밭’은 나비가 꿈꾸는 이상적 세계요, “바다는 나비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스런 현실 세계를 나타내어 대립된다.
- ② ‘흰나비’는 ‘바다’를 ‘청무우밭’으로 알고 뛰어들었다가 날개가 젖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 ④ ‘바다’와 ‘초생달’은 ‘시리다’라는 시어와 연결되며 차가운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문 12. <보기>를 참고할 때, ㉠ ~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어떤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의 한 단면을 그리는 소설 양식을 세태 소설이라 한다. 세태 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그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그 대표적인 소설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 있다.

㉠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인지대 백 원. 열람비 오 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 십팔 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칠 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광산에 가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중에서 -

- ① ㉠: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공간적 배경이다.
- ② ㉡: 적극성을 지닌 존재들로 서술자의 예찬 대상이다.
- ③ ㉢: ‘무거운 한숨’을 유발하는 부조리한 현실로 서술자의 비판 대상이다.
- ④ ㉣: 서술자가 ‘금광열’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한 대상이나 공간이다.

[정답] ②

[현대소설-서술자의 생각] 난이도 하

‘황금광시대’라는 표현 뒤에 나온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서술자는 ‘금광 브로커’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문 13. ㉠ ~ ㉣에 대한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빌기를 다 함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황천인들 무심할까. 단상의 오색구름이 사면에 웅위하고 산중에 ㉠ **백발 신령이 일제히 하강하여 정결케 지은 제물 모두 다 흠향한다**. 길조(吉兆)가 여차(如此)하니 귀자(貴子)가 없을소나. 빌기를 다한 후에 만심 고대하던 차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 ㉡ **천상으로서 오운(五雲)이 영롱하고, 일원(一員) 선관(仙官)이 청룡(靑龍)을 타고 내려와 말하되**,

“나는 청룡을 다스리던 선관이더니 익성(翼星)이 무도(無道)한 고로상제께 아뢰되 익성을 치죄하여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냈더니 익성이 이걸로 함심(含心)하야 ㉢ **백옥루 잔치 시에 익성과 대전(對戰)한** 후로 상제전에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심에 갈 바를 모르더니 남악산 신령들이 부인 덕으로 지시하기로 왔사오니 부인은 애홀(愛恤)하옵소서.”

하고 타고 온 청룡을 오운 간(五雲間)에 방송(放送)하며 왈,

“㉣ **일후 풍진(風塵)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

하고 부인 품에 달려들거늘 놀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 황홀하다.

정신을 진정하여 정언주부를 청입(請入)하야 몽사를 설화(說話)한대 정언주부가 즐거운 마음 비할 데 없어 부인을 위로하야 춘정(春情)을 부쳐 두고 생남(生男)하기를 만심 고대하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 있어 십 삭이 찬 연후에 옥동자를 탄생할 제, 방 안에 향취 있고 문 밖에 서기(瑞氣)가 뻗질러 생광(生光)은 만지(滿地)하고 서채(瑞彩)는 충천하였다.

… (중략) …

이때에 조정에 두 신하가 있으니 하나는 도총대장 정한담이요, 또 하나는 병부상서 최일귀라. 본대 천상 익성으로 자미원 대장성과 백옥루 잔치에 대전한 죄로 상제께 득죄하여 인간 세상에 적강(謫降)하여 대명국 황제의 신하가 되었는지라 본시 천상지인(天上之人)으로 지략이 유여하고 술법이 신묘한 중에 금산사 옥관도사를 데려다가 별당에 거처하게 하고 술법을 배웠으니 만부부당지용(萬夫不當之勇)이 있고 백만군중대장지재(百萬軍中大將之才)라 벼슬이 일품이요 포악이 무쌍이라 일상 마음이 천자를 도모코자 하되 다만 정언주부인 유심의 직간을 꺼려하고 또한 퇴재상(退宰相) 강희주의 상소를 꺼려 주저한 지 오래라. - 「유충렬전」 중에서 -

- ① ㉠: 길조(吉兆)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 ② ㉡: ‘부인’이 꾸 꿈의 상황이다.
- ③ ㉢: ‘선관’이 인간 세상에 귀양을 오게 되는 계기이다.
- ④ ㉣: ‘남악산 신령’이 후일 청룡을 타고 천상 세계로 복귀할 것임을 암시한다.

[정답] ④

[고전소설-유충렬전] 난이도 중

부인의 꿈속에서 주인공이 “남악산 신령들이 부인 덕으로 지시하기로 왔사오니”라고 하였다. ‘남악산 신령들’은 그와 같이 천상 존재들의 움직임을 결정짓는 신인들인데, 그들이 후일 천상계로 복귀함을 ㉣이 나타낸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풍진(風塵)’은 ‘속세’를 가리키며, 주인공 ‘유충렬’이 전쟁의 와중에 다시 ‘청룡’을 부를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표현이다.

유충렬전

㉠ 갈래 : 고대소설, 창작 군담소설, 영웅소설, 국문소설

㉡ 성격 : 전기적(傳奇的), 우연적, 일대기적, 비현실적

㉢ 시점 : 전기적 작가 시점

㉣ 구성 : 영웅 유충렬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함.

기자정성(祈子精誠)- 태몽- 아들 탄생- 주인공의 시련- 국가의 위기- 주인공의 입공(立功)- 정적(政敵)의 보수(報讐)- 부귀영화 등 영웅서사시의 골격.

* <유충렬전>에 나타난 적강 모티프

이 작품은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이원적 공간을 설정하고, 주인공이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 지상계로 추방된다는 적강 모티프를 지니며, 이것은 작품 전체에서 복선의 구실을 한다. 즉, 유충렬은 천상에서 익성과의 반목으로 적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익성의 화신인 누군가와 대립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문 14. ㉠ ~ ㉢의 한자가 모두 바르게 표기된 것은?

<보 기>

글의 진술 방식에는 ㉠ 설명, ㉡ 묘사, ㉢ 서사, ㉣ 논증 등 네 가지 방식이 있다.

㊦	㊧	㊨	㊩
① 説明	描寫	敘事	論證
② 設明	描寫	敘事	論症
③ 説明	猫鯨	徐事	論症
④ 説明	猫鯨	徐事	論證

[정답] ①

[한자] 난이도 중

㉠ 說(말씀 설) 明(밝을 명). * 設(배출 설)
㉡ 描(그릴 묘) 寫(베낄 사). * 猫(고양이 묘)
㉢ 敍(차례 서) 事(일 사). * 徐(천천할 서)
㉣ 論(말할 논) 證(증거 증). * 症(증세 증)

문 15.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정에 맞는 것은?

- ① 병이 씻은 듯이 낫았다.
- ② 넉넉치 못한 선물이나 받아 주세요.
- ③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갔다.
- ④ 옷가지를 이여서 밧줄처럼 만들었다.

[정답] ③

[한글맞춤법] 난이도 하

‘잠그다’는 ‘-’탈락의 규칙 활용을 하는 동사이다. ‘잠갔다’가 맞고 ‘잠꿔다’는 잘못이다.

〈오답 피하기〉

① 병이 '났다'. 'ㅅ' 불규칙이므로 '나았다'라고 써야 옳다.
 ② '넉넉지'가 맞는 표현이다. 어근 말음으로 안올림소리인 'ㄱ'이 왔으므로 '넉넉지'가 맞는 것이다.
 ④ '이어서'라고 해야 한다. '잇다'는 '이으니, 이어서' 등으로 활용되는 것이 맞다.

문 16. 훈민정음의 28 자모(字母) 체계에 들지 않는 것은?

① $\bar{o}$ ② Δ
③ π ④ 병

[정답] ④

[한글의 특질-훈민정음] 난이도 하

훈민정음 28자에 ‘뽕’은 들어가지 않는다.

문 1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② 그는 일도 잘할 뿐더러 성격도 좋다.
 ③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만에 떠났다.
 ④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정답] ①

[뜨]어쓰기] 난이도 상

‘한밤중(깊은밤, 어떤 일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합성어로 붙여 쓰는 것이 합당하다.

의존명사 ‘중’이 쓰인 경우: 회의 중, 임기 중
‘중’이 들어간 합성어: 한밤중, 은연중

〈오답 피하기〉

② ‘잘할뿐더러’로 붙여 써야 한다. ‘ㄹ뿐더러’가 어미로 쓰인 경우이다. * ‘잘할√뿐만√ 아니라’와 같은 경우는 띄어 쓴다.

③ ‘두√시간√만에’라고 띄어 쓴다. ‘만’이 의존명사이다.

④ ‘잘√안되다’라고 띄어 써야 옳다. ‘안되다’가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를 뜻하는 합성어로 쓰인 것이다.

문 18. 독음이 모두 바른 것은?

- ① 探險(탐험) - 矛盾(모순) - 貨幣(화폐)
- ② 詐欺(사기) - 惹起(야기) - 灼熱(치열)
- ③ 荊棘(형자) - 破綻(파탄) - 洞察(통찰)
- ④ 箴言(잠언) - 惡寒(악한) - 奢侈(사치)

[정답] ①

[한자의 독음] 난이도 상

探(찾을 탐) 險(험할 험), 矛(창 모) 盾(방패 순), 貨(재화 화) 幣(비단 폐)

〈오답 피하기〉

② ‘작열’이라 했어야 한다.
詐(속일 사) 欺(속일 기), 惹(이끌 야) 起(일어날 기), 灼(사를 작) 熱(더울 열)

③ ‘형극’이라 했어야 한다.
荊(모형나무 형) 棘(멧대추나무 극) * 束(가시 자)
破(깨뜨릴 파) 綻(웃 터질 탄), 洞(뚫을 통) 察(살필 찰)

④ ‘오한’이라 했어야 한다.
惡(미워할 오) 寒(찰 한): 몸이 오슬오슬 춥고 떨리는 증상.
箴(바늘 감) 言(말씀 언):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奢(사치할 사) 侈(사치할 치)

문 19.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ㄴ, ㄹ, ㅇ’은 유음이다.
- ② ‘ㅅ, ㅆ, ㅎ’은 마찰음이다.
- ③ ‘ㅡ, ㅣ, ㅏ’는 후설 모음이다.
- ④ ‘ㄱ, ㅋ, ㆁ, ㄷ’는 원순 모음이다.

[정답] ①

[음운론-음운의 체계] 난이도 하

‘유음’에는 ‘ㄹ’이 들어간다. ‘ㄴ, ㅁ, ㅇ’은 비음에 속한다.

문 20. 내용의 전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가)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나)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것과 저것은 저 혜시(惠施)가 말하는 방생(方生)의 설이다.

(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절대적인 자연의 조명(照明)에 비추어 본다. 그리고 커다란 긍정에 의존한다. 거기서는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또 저것도 하나의 시비(是非)이고 이것도 하나의 시비이다.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다는 말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다는 말인가.

(라) 그러나 그, 즉 혜시(惠施)도 말하듯이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있다. 역시 된다가 있으면 안 된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으면 된다가 있다. 옳다에 의거하면 옳지 않다에 기대는 셈이 되고, 옳지 않다에 의거하면 옳다에 의지하는 셈이 된다.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가) - (다) - (나) - (라)
④ (가) - (라) - (나) - (다)

[정답] ②

[단락의 연결] 난이도 하

선택지에서 (가)를 맨 앞에 제시하고 있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가)에서 ‘이것과 저것’의 관계를 다루었다. 이를 (나)에서 다시 다루면서 ‘이것이 저것에서, 저것이 이것에서 생겨남’을 밝혔다. 그리고 헤시의 발생설을 언급했다. 이는 다시 ‘헤시’를 연결어로 하여 (라)로 이어진다. 이는 다시 ‘이런 상대적인 방법’을 매개로 하여 (다)로 이어진다.

■ 정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②	④	②	③	③	①	③	②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④	①	③	④	①	①	①	②